

의료인문테이마스크 뷰드분부
(News Letter)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ontents

1. 커피 이즈 더 뉴 블랙	1
2. 재즈의 향기	7
3. 인생극장-사람토론	11
4. 건강한 의대생활	15
5. 화요일 오후의 작은 음감회	17
6. 의료 전문 기자 되기	19
7. 조금 더 알아보자! 의료정책	25
8. 머신러닝 뭐꼬? 내캉 관계 있나!! ...	29
9. 의료인문 2D하기	33
10. How we die?	37

[커피 이즈 더 뉴 블랙]

작성자 : 박건우

참관 날짜 : 9/29 (화) -2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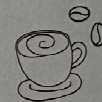
수업 주제 : 1. 커피 추출 원리 이해 및 추출 변수1 (온도)
2. 여러 가지 추출 도구1 _콜드브루 (더치커피)

지도 교수 : 노운석 교수님(마취통증의학)

멤버 : 곽도영, 김윤지, 이산호, 정래현

장소 : 4층 미생물학 실험실

커피수업				
날짜	목차	주제	수업내용	교육시간
1회차 9/22 화	커피학 개론	커피 기초 이론 핸드드립 기본동작 익히기	생두에서 한잔의 커피까지 기초 이론 핸드드립 커피추출 방법 익히기	2시간
2회차 9/29 화	핸드드립1 여러 가지 추출 도구1	커피 추출 원리 이해 및 추출 변수1 (물의 온도) 콜드브루(더치커피)	원두 속의 커피 성분의 추출에 대한 과정 이해 하리오 도구를 이용한 추출과정 설명 및 실습 커피의 와인이라고도 불리는 콜드브루 추출 실습	2시간
3회차 10/06 화	핸드드립2 여러 가지 추출 도구2	추출변수2 (분쇄도) 클레버	커피성분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추출변수 실습과 커피향미 평가 간편한 핸드드립 클레버 추출 실습	2시간
4회차 10/13 수	핸드드립3 핸드드립4	추출변수3 (추출시간) 추출변수4 (물의양)	커피성분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추출변수 실습과 커피향미 평가 커피성분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추출변수 실습과 커피향미 평가	2시간
5회차 10/20	커피로스팅	커피로스팅 방법 (약배전) 커피로스팅 방법(강배전)	커피로스팅에 따른 커피향 평가	2시간



의대생과 커피는 분명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이다. 공부를 할 때나 수업을 들을 때, 밤샘을 하거나 심지어는 시험이 끝나고 놀러갔을 때도, 우리의 손엔 언제나 커피가 들려있다. 그리고 그것은 편의점에서 사온 민생커피거나 투썸에서 구매한 시원한 아메리카노일 수 있으며, 때때론 자판기에서 뽑은 캔커피일 수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원재료나 제조원리가 어쨌든 모두 다 커피라는 점이다.

이렇듯 우리에게 친숙한 커피의 추출과 제조 원리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실습해볼 수 있는 수업이었기에, 꼭 한 번쯤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다. 더군다나 지원 당시 희망자가 한 번에 일곱 명이나 몰렸던 엄청난 수업이었기에 그 내용이 더더욱 궁금해졌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습이 시작되는 2회차 수업에 곧장 참관 신청을 넣어보았다.

1. 커피 추출 원리 이해 및 추출 변수1 (온도)

‘커피 이즈 더 뉴 블랙’의 담당교수님은 본과 1학년 임상의학총론의 모듈로서 우리에게 익숙한 노운석 교수님이셨다. 강의를 들을 땐 다소 간간하고 엄격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론 생각만큼 딱딱하신 분이 아니었을 뿐더러 중간중간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주시는 등 학생들이 재미있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다. 커피에 대한 지식과 애정도 상당하다는 것이 느껴졌다. 아무튼 그렇게 교수님의 주도로 2주차 수업이 시작되었다.

1교시에는 1회차 때 배웠던 커피추출법을 간략하게 복습하였고, 커피를 추출할 때 변수로 작용하는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 이론적인 지식을 배웠다. 이번 시간엔 그중 하나인 ‘온도’에 따른 차이에 대해 실습해보았다.

실습은 네 사람이 각각 동시에 진행하였다. 커피 원두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분쇄 커피량은 20g, 총 물 투입량은 300g으로 ‘온도’를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각각의 온도는 아래와 같이 85°C에서부터 100°C까지 5°C 간격으로 차이를 두고 커피를 추출해보았다.

정래현 : 85°C
곽도영 : 90°C
이산호 : 95°C
김윤지 : 100°C

이후 각자가 추출한 커피를 종이컵에 하나씩 담아 비교해보았다.

교수님 피셜로는 온도가 높을수록 커피 성분이 더 많이 추출되어 색이 진해진다고 하셨지만, 막상 내 눈으로 봤을 땐 큰 차이는 없었다. 그나마 85°C와 100°C는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진하기가 다르긴 했지만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었다.

색으로는 구분이 힘들었지만, 실제로 하나씩 마셔보니 온도에 따라 맛의 차이가 확연했다. 아래는 내가 직접 마셔보고 느낀 맛 감상이다.

85°C : 쓴맛보다는 신맛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짐. 다소 연한 맛

90°C : 짹짹한 맛. 85°C보다 신맛이 확 줄었다. 뭔가 애매모호한 맛

95°C : 이전보다 쓴맛이 더 강한데 신맛도 살짝 느껴짐

100°C : 쓴 맛이 확 느껴짐. 신맛은 거의 없었다.

개인적으로 95°C로 추출한 커피의 맛이 내 입맛엔 가장 잘 맞았다. 커피 멤버들 중에선 90°C를 선택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도 95°C가 가장 맛있었다고 대답했다. 5명 중에서 4명이니, 확률로 따져보자면 80%가 95°C로 추출한 커피를 선호한 것이다.

이 결과를 듣고선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놀랍게도 실제로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커피도 대부분 95°C로 추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역시 사람들 입맛은 다들 비슷한가보구나 생각했다.



학생들이 제각기 다른 온도로 커피를 추출하는 모습. 실험실이 배경이다보니 미생물학 실습 보고서에 들어가더라도 위화감이 없을 것 같다.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기 전, 교수님께서 콜드브루에 대해 잠깐 설명하시는 사이 커피 멤버인 정래현 학생이 교수님 몰래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았다. 나름의 ‘콜드브루’ 랍시고 남은 커피가루에 찬물을 부어서 추출하여 마셔봤는데, 커피 맛은 거의 없고 그냥 맹물에 가까웠다. 이미 여러 번 추출에 사용한 가루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역시 커피는 제대로 된 추출법에 따라 내려 마시는 게 진리이다 :)

2. 여러 가지 추출 도구1 _콜드브루 (더치커피)

카페나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콜드브루는 또한 ‘더치커피’라고도 불린다. 콜드브루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커피와는 달리 뜨거운 물이 아닌 차가

운 물로 추출한 커피이다.

그렇다면 콜드브루라는 독특한 커피 추출법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콜드브루의 유래는 과거 네덜란드인들이 그들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커피 원두를 배로 운송하던 도중 밤사이 내린 빗물이 원두가 담긴 자루에 스며들었다가 새어나왔고, 우연히 그 액체를 마셔봤더니 기존의 커피랑 다르더라~ 그렇게 해서 콜드브루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다들 재밌어하며 신기해하고 있었는데, 정작 신빙성은 없는 이야기라고 하셔서 다소 맥 빠진 기분이었다.

콜드브루의 맛은 일반 커피를 85°C로 끓였을 때와 비슷하다고 하셨다. 커피에 들어있는 산미, 즉 신맛은 남아있고 쓴맛이 커팅(cutting)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콜드브루 자체가 차가운 물로 오랜 시간 추출해서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거니 싶었다.

콜드브루는 추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팅을 하더라도 오늘 중엔 마실 수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실습은 하되, 그 전에 먼저 교수님께서 주말 동안 만들어 오신 콜드브루를 맛보기로 했다. 종이컵에 콜드브루 원액을 얇게 깔고 뜨거운 물을 3배가량 넣어서 마셔보았는데, 혀에 맴도는 맛이 부드럽고 끝맛이 깔끔했다. 쓴맛이 커팅되었다곤 해도 여전히 신맛보단 쓴맛이 우세하긴 했지만 그다지 맛이 강하진 않아 커피를 잘 못 마시는 사람이라도 가볍게 마시기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콜드브루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추출기구가 두 대밖에 없었기에 래현-도영, 윤지-산호 이렇게 두 명이서 한 조를 이루어 진행하였다. 이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내 실수로 하마터면 실습을 망쳐버릴 뻔한 해프닝이 있었다.

원두를 갈 때 그라인더의 수치를 20으로 세팅했던 이전 시간과는 달리, 콜드브루 추출용 원두는 그보다 훨씬 곱게 갈리는 14로 세팅하여 갈아야한다. 그런데 이때 교수님께서 ‘그 외 나머지는 이전이랑 똑같이 진행하면 된다’고 하신 말씀을 내가 잘못 알아듣고는 래현-도영 팀에게 “아까 것처럼 20으로 갈면 된다”라고 잘못 알려줘서 그대로 갈아버렸던 것이다. 뒤늦게야 그 사실을 깨닫고 망했다면서 당황하며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걱정 말고 다시 그라인더에 넣어서 14로 다시 갈면 된다고 하셔서 안심했다.

모든 세팅이 끝나고 이젠 6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추출한 커피를 마셔보는 일만 남았다. 다만 그때까지 모두가 실험실에서 죽치고 기다릴 순 없으니 멤버 중 두 명이 책임지고 집에 챙겨갔다가 가족들과 마셔보고 감상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것으로 이날의 실습은 마무리가 되었다. 아래는 실습 후의 감상을 남긴 조원별 짤막한 후기이다.

래현 : “온도에 따른 맛의 차이라는 걸 시중에서 마셔보는 것과 직접 만들어서 구별해보는 것이 와닿는 게 달랐다.”

도영 : “앞으로 콜드브루만 사마시겠다.”

산호 : “원래 아메리카노보단 콜드브루를 더 선호했는데, 이렇게 제조 원리를 알고 나니 더 재밌게(?) 마실 수 있을 것 같다.”

윤지 : “역시 모르고 먹는 거랑 알고 먹는 거는 다르구나~”

이후 콜드브루를 챙겨갔던 한 학생으로부터 평가를 들어보았다. 집에 도착한 후 추출이 다 되길 기다려 직접 내려서 마셔봤는데, 생각 이상으로 엄청 맛있었다고 한다. 겨울에 커피 추출 기구 몇 개를 사볼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할 정도였으니, 앞으로의 수업도 기대해볼 만한 것 같다. :)

[참관 후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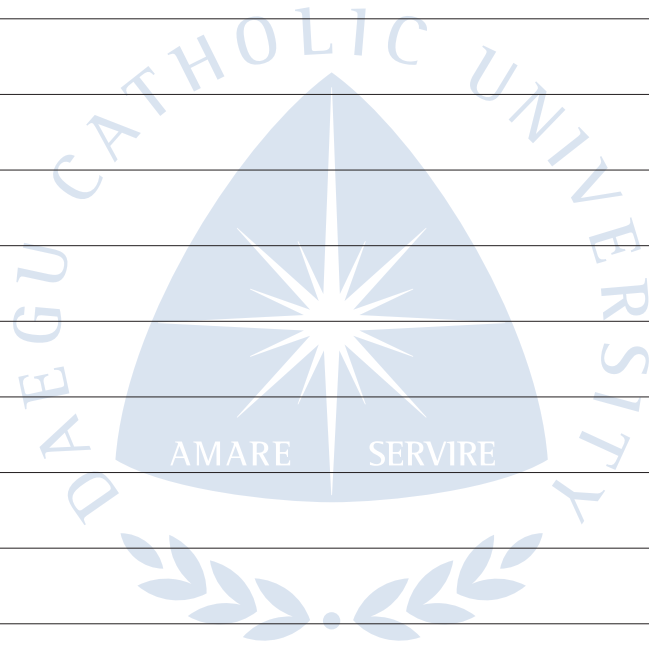
평소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활동이 재밌어보여서 참관을 지원했는데, 이론 수업을 너무 딱딱하게 진행하지도 않았고 직접 커피를 만들어보는 재미도 있어서 매주 참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그만큼 흥미로웠고 신선한 체험이었다.

여담으로 이때가 밤새 공부하고 시험을 친 당일이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가루들을 테이블에 3번 가랑 번갈아가며 쏟았다. 한 명이 쏟자 이에 질 세라 다른 친구들도 종이며 저울 위에 여기저기 가루들을 쏟아버려서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나까지 합세하여 정신없이 치우기도 했다.

더군다나 수업의 주제가 커피다보니 수업 내내 추출한 커피를 몇 컵이나 마시게 되는데, 그 탓에 시험을 치느라 피곤한데도 심장이 두근거리 다들 잠을 못 잤다고 한다. 시험을 치러 오는 김에 의인테 수업을 진행하는 건 시간 효율은 좋아도 커피로 인한 원치 않은 각성효과로 고통 받고, 그렇다고 시험 전에 하자니 공부시간을 잡아먹게 되므로 참으로 난감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런 소소한 단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신청할 가치가 충분한 수업이었다. 작년 경험 상 의인테 발표회 날 복도에서 17학년 선배님들이 여러 종의 원두로 커피를 내려서 나눠준 기억이 있는데, 올해엔 동기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맛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

MEMO



[재즈의 향기]

18118306 배주형

참관일시 :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지도 교수 : 김숙영 교수님

현재 본과 1학년인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험에 허덕이고 있다. 매주 시험이 있어 제대로 여가생활을 가지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매 시험 밤을 새우고 시험을 치고 나서는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팀은 매주 재즈를 공부하고 정해진 시간에 재즈를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했다.

재즈란 본래 자유로운 음악으로 즉흥적이면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음악이다. 이 팀의 구성원을 보면 전부 항상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독창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도 처음에는 재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처음 수업을 듣고 그 다음 주부터는 재즈에 관련된 책도 열심히 읽고 그 시대에 대표하는 재즈 음악가는 누구인지, 또 대표적인 음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평소에도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공부도 많아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도 싶고, 새로운 장르를 접해보고 싶어 이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다.

활동 내용 및 소감

이 시간에는 재즈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나누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이상엽 학생이 재즈가 흥등가에서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루이 암스트롱에 관해서 명하였다. 그가 유명한 음악가가 되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그가 음악을 처음 시작한 계기는 어렸을 때 소년원에 들어가서 악기를 처음 배우고 소년원을 나온 뒤 밴드에서 활동하면서 그 당시 대표적인 재즈 음악가인 킹 올리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의 가르침을 받고 재즈 음악에서 본인만의 색깔을 찾고 음악을 발전시켰다. 그의 대표적인 노래는 무수히 많지만, 그중에서 Hello Dolly와 Blueberry Hill이라는 노래를 들었다. Hello Dolly는 신나는 노래인 반면, Blueberry Hill은 블루스 같은 느낌의 노래였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교수님은 그가 소년원에 들어간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이 아니냐고 하시고 이상엽 학생이 루이 암스트롱 같은 경우 부인이 여러 명 있었을 첫 번째 부인이 매춘부로 재즈의 시작이 흥등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말했다. 또한 그거 처음 음악가로 활동할 때는 그의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가 처음에는 백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노

래를 못 부르게 하다가 그가 유명해지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의 무대를 볼 때 그의 실력도 좋지만, 그의 표정이 얼마나 그가 무대를 즐기는지 알 수 있었다. 여기서 교수님이 덧붙여 설명하시기를 이 당시에는 4박의 노래에서 박수를 정박인 1, 3박에서 박수를 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엷박인 2,4박에서 박수를 치게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서 재즈가 현대음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임형준 학생이 다음으로 스윙재즈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이전의 재즈가 뉴올리언스에서 흥했다면, 이때의 재즈는 뉴욕에서 흥하였다. 이 시기에 앞서 말한 엷박자에 박수를 치는 문화가 나타났고, 재즈가 주로 파티나 연회 때 연주되는 음악이라고 했다. 이 시대의 재즈 특징이 스윙재즈에 걸맞게 더 신나게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 시대가 재즈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재즈 음악가로 레스터 영이라는 색소폰 연주가 있다. 그는 백인으로 이 시대 이후로 흑인 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재즈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스윙재즈 시대의 특징이다. 그가 연주하고 빌리 홀리데이가 부르는 곡을 들었는데 스윙재즈 시대의 곡치고는 신나진 않았지만 레스터 영의 색소폰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었다. 그래서 그를 색소폰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

다음으로 정제원 학생이 베니 굿맨이라는 재즈 음악가를 소개했다. 그는 12형제 중 9번째이고 아버지가 재즈를 좋아했고 그도 자연스럽게 재즈를 좋아하게 되어 클라리넷을 연주하게 되었다. 10살 때부터 밴드에 들어가 연주하고, 인성도 좋고 인종차별을 싫어해서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흑인들과 어울렸다고 했다. 보통 흑인들로만 구성

하거나 백인들로만 구성되는데 이것이 특이한 점이다. 이분이 swing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이분의 가장 유명한 곡이 sing sing sing으로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들은 노래라고 하는데 특히 광고에서 많이 나온 노래라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김연아의 에어컨 광고에서 나온 것이다.

베니 굿맨의 영상을 볼 때도 빌리 홀리데이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때 교수님께서 빌리 홀리데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이 분이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셨는데 그 시대에 재즈 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빌리 홀리데이 역시 마찬가지로 했고 마약때문에 남편으로 이상한 사람을 만나 결혼생활이 꼬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분의 별명이 레이디 데이인데 이 별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해서도 설명해주셨다. 원래 여자 재즈 가수들은 노래를 부르면 관객들이 스타킹 같은 곳에 돈을 넣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아 사람들이 비아냥대듯 레이디라고 불렀는데 레스터 영이 그녀에게 레이디 데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홀리데이가 레스터에게 대통령을 뜻하는 프레즈라고 불러주어 이 둘을 부를 때 대통령과 영부인 느낌이 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기환 학생이 비밥 재즈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이 시대 재즈의 특징은 자유로움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때 즉흥 연주가 많아졌고, 대규모보단 소규모로 악단이 생겼다고 한다. 이 시대의 유명한 재즈 음악가는 찰리 파커가 있는데 인성이 너무 안 좋아 공연을 바로 직전에 취소시키는 건 기본이고 마약 때문에 벌린 돈도 갚지 않았으며 연주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드럼을 던지는 일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영화 위플래시에서 드럼을 던지는 장면도 이분의 에피소드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한다.

이 수업을 듣고 느낀 점은 음악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도 있구나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우리가 음악을 부르거나 연주할 때는 악보에 맞추어서 할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재즈에서는 자유롭게 연주하는데, 같은 곡이라도 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사람이 연주해도 항상 같은 음악으로 들리지 않고 매번 색다른 느낌이 들어 정말 매력적인 음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재즈처럼 이 수업의 분위기 역시 굉장히 자유로웠는데 교수님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듣고 자기 생각들을 말하는데 가끔 농담도 주고받고 웃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가 그 당시 음악가들이 마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보통 마약을 하면서 영감을 얻는다고 하고 하면서 이래서 JYP가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농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러한 수업을 치킨과 피자를 먹으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들으니 더욱 몰입이 잘 되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 공부하기 바쁜 시기,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지 못할 때 가끔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 글을 읽은 여러분에게 재즈를 듣는 것을 추천한다.



[인생극장-사람토론]

작성자 : 신은민

일 시 : 10월 5일 오후 5시 30분

담당교수 : 김지락 교수님

조 원 : 김지현, 신진철, 오유영, 이강현

장 소 : 7층 세미나실

주 제 : 영화 '코코'를 보고 우리 삶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에 대해 토론하기

인생극장에서는 한 주에 조원들이 투표를 통해 고른 영화를 감상하고, 그 다음주에 영화와 우리의 인생에 관련하여 토론하는 활동을 한다. 영화를 볼 때 팝콘이나 음료를 사와서 먹는 것도 가능하고 또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감상하므로 동기들과 함께 진짜 영화관에 와서 관람하는 느낌이 나서 더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다.



↑토론 시작 전 준비하고 있는 조원들

이번 활동은 영화 '코코'를 보고 그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었다. 영화 주인공인 멕시코의 한 소년 '미구엘'은 구두 명장 집안의 막내아들이며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러나 미구엘의 가족들은 미구엘이 음악을 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데, 결국 미구엘은 집을 나와서 가수가 되기 위해 머나먼 여정을 떠난다는 것이 '코코'의 대략적인 줄거리다. 토론의 질문들은 영화를 보고 떠오르는 주제로 조원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각 질문들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자신의 주장과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질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을 때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질문은 총 네 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음악을 하겠다고 집을 나간 아이를 꼭 찾아서 집에 데려와야 하는가?
2. 부모는 자식의 꿈에 반대할 권리가 있는가?
3. 타인에게 기억되는 삶만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4. 미구엘(영화 주인공)은 무대에 솔로 참가를 신청했지만 중간에 헥터와 듀엣을 하였다. 참가신청서의 참가자와 실제 참가자가 다른 것은 참여자격 박탈 사유인가?

토론은 한 명씩 이야기하고 반대입장이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토론 전 미리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 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반대 입장의 조원이 반박을 하면 설득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교수님이 중간에 개입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주시거나 조금만 상황을 바꿔서 제시했을 때 말이 모순되며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부모는 자식의 꿈에 반대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도중 교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와 관련 지어 자식이 의대에 진학하였을 때의 상황에서 과 선택에 대해서도 부모가 반대할 권리가 있냐고 질문하셨다. 그때 까지만 해도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던 조원이 자식의 꿈에 대해 큰 방향으로서는 개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까지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한 토론 도중 어쩌다가 ‘자식을 키울 때 투자를 했으면 원금회수는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원들이 모두 원금회수는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생각할거리를 던져 주셨다. 이렇듯 토론을 하다가 말이 바뀌기도, 또 모순되기도 했고, 주제가 옆으로 새기도 했지만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른지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원들의 여러가지 생각을 편하게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진행을 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 신경 쓰신 것이 느껴졌는데, 각 조원들이 의견을 발표할 때 시간을 재서 2분에 가장 가깝게 발표하는 조원에게는 교수님께서 커피 상품권을 주시기도 하셨고, 마지막에 가장 토론을 잘한 조원을 투표로 뽑아서 1등을 한 조원이 고른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가기도 했다. 식당 후보 중 앞산 맛집도 있었고 동성로 맛집도 있었는데 투표에 1등한 조원이 고른 식당이 비산복어라서 결국 그곳에 저녁을 먹으러 갔던 것이 인상 깊었다. 인생극장을 다녀온 후 느낀 점은 단순히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부분에서도 우리 인생과 연관 지었을 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기들과 편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하니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자유로이 말할 수 있다는 게 장점 같다. 영화 ‘코코’를 본 사람이라면 위 질문들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하다.



↑토론이 끝난 후 저녁 식사하러 가기 전 기념사진~

MEMO



[건강한 의대생활]

참관 날짜 : 11월 8일 금요일

지도 교수 : 김인환 곽상규

학 생 : 김병권 김일광 노주언 장성빈

장 소 : 대구 신천

3쿼터 마지막 시험이 끝난 날 김인환 교수님과 곽상규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건강한 의대생활 활동을 체험하였다. 동기들과 학교에서 모여 교수님 차로 신천으로 이동하며 오늘 할 활동 산책이 아니라 달리기라는 것을 듣고 끝까지 달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차에서 교수님과 동기들에게 그동안 한 활동에 대해 들었는데 교수님들께서 여러 활동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에 할 것을 정하는 자유로운 방법으로 다음 활동을 정하는 것 같았다. 다음에 할 활동의 후보는 볼링이나 영화 보기 등 다양한 방향의 주제들이 있어서 재미있어 보였다. 보통 활동을 하면 그날 저녁도 사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신천 근처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고 몸을 풀었는데 교수님과 조원들의 신발이 똑같은 것이 눈에 띄었다. 교수님들께서 이 날 활동을 위해 교수님



1) 모두 같은 신발이 인상적이다.

들과 조원 모두의 신발을 사서 똑같이 맞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가족 같아 보였다. 신천을 향해 걸어가던 중 도착한 다음 달릴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가는 길에 달리기 시작되었다. 교수님의 힘찬 외침을 시작으로 여유롭게 걷는 사람들을 지나 인도를 달리며 신천으로 뛰어 내려갔다. 요 며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오늘 활동도 추위를 견디며 진행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날씨도 따뜻하고 달리로 몸도 따뜻해져 전혀 춥지 않았다. 달려서 도착한 신천은 생각보다 넓고 한적했는데 평일 오후였는데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신천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본격적으로 달리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다들 웃고 얘기하며 달리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숨이

차오를수록 달리는데 집중하며 조용해지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교수님들께서는 예상



2) 신천 앞 기념사진

들 보람을 느꼈다.

중동교 너머에서 신천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출발지점을 향해 달렸는데 다들 힘들었지만 교수님께서 사주실 맛있는 저녁을 생각하며 힘내서 뛰는 듯 했다.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옆에 있는 여러가지 건강기구들을 체험하며 쉬었는데 테마스쿨의 조 이름이 왜 건강한 의대생활인지 느낄 수 있었다. 열심히 뛰다 보니 어



3) 즐거운 저녁자리

주셨는데 조원들은 운동을 열심히 한 만큼 즐겁게 식사했다.

이번에 견학한 조에서 체험한 활동은 단순히 생각하면 달리기만 한 것이지만 활기차게 운동하며 소통하는 교수님들과 조원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고 매일 공부만 하던 동기들과 강의만 해주시던 교수님들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매주 이런 활동을 한다면 정말 건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로 꾸준한 페이스로 달리셨고 동기들도 매일 책상에서 공부만 해서 쉽게 지칠 것 이란 예상과 다르게 교수님들을 잘 따라갔 다. 달리다 보니 산책로 옆에 간이 집라인 이 있어 이참에 숨을 고르며 체험하였다. 쉬는 도중 교수님께서 신천을 가로지르는 여러 다리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생각보다 신천이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강에서 봤던 여러 대교가 떠올랐다. 대봉교 즈음 에서 달리기 시작하여 희망교를 지나 벌써 중동교에 도착했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다

느새 출발지점에 다시 돌아와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가게 되었는데 식당으로 가는 길도 물론 달려서 이동했다. 매일 바쁘게 걸어 다니며 자세히 보지 않았던 도심을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 다른 장소처럼 느껴졌 다. 달리기가 끝나고 식당에 도착하여 교수님께서 저녁을 사

[화요일 오후의 작은 음감회]

참관 날짜: 11/17 (화)

지도 교수: 이숙희 교수님

참여 학생: 김세현, 김보현, 김보현, 조민지, 조현정

장 소: 수성구 쿠마렘

음악감상회에 참여하기 위해 음감회 조원들과 수성구에 위치한 식당, 쿠마렘에 방문했다. 교수님과 만나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며 편한 분위기 속에서 의인테가 진행되었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주마다 교수님을 포함해, 돌아가며 한 명씩 주최자가 된다. 주최자가 가고 싶은 식당을 고르면 식당이 모이는 장소가 된다. 또한, 주최자는 만나기 전 4곡의 노래를 선정해 각 조원이 일주일 동안 듣고 서로 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마지막으로 각자 최근 듣는 노래를 하나씩 추천해주고, 다음 모임 때까지 들은 후, 하나씩 투표해 선정된 사람은 마지막에 합쳐 상품을 주는 순서도 있었다.

필자가 참가한 주에는 김세현 학생이 주최자가 되어 식당과 노래를 선정했다. 식당은 그동안 모임동안 수성구에선 만나지 않아, 가보지 못한 동네에 가보고 싶어 선정했다고 한다. 노래는 가수-노래 순서로 리쌍-광대, 로꼬-감아, 엑소-첫 눈, 아이콘-climax를 선택했다. 각 노래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리쌍의 광대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준 플레이리스트에 있던 노래였는데 리쌍의 멤버인 길의 목소리와 개리의 독특한 랩이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리쌍이 교수님 또한 정박이 아닌 자기 톤으로 처음 랩을 한 가수이며, 리쌍 노래가 그 당시 센세이셔널했다고 말씀해주셨다. 로꼬의 감아는 쇼미더머니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로꼬에 대해 알게 되었고, 로꼬의 노래를 많이 듣다보니 좋아졌다고 한다. 4곡 중 아이돌 노래인 엑소의 첫 눈, 아이콘의 climax가 있었는데, 이는 누나가 아이돌을 좋아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아이콘의 climax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마약을 해 탈퇴한 B.I에 대해 이야기하며 B.I가 처음에

는 성실하고 데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다 초심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각자 의과대학에 처음 들어오게 된 동기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다보니 의대에 오게 되거나 처음부터 인체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등 동기가 다양했다. 교수님은 동기가 없으면 동기가 있는 사람보다 목표를 잃기 쉬워 힘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지난 모임 때 각자 추천한 6개의 노래에서 제일 좋았던 한 곡을 선정했다. 6개의 노래는 이상하지 않은가, why, dumb dumb, 미리메리크리스마스, 잠이 들어야, gonna fly now였다. 투표를 한 결과, 미리메리크리스마스과 잠이 들어야가 3대3으로 동률이 나와 다시 투표한 결과 미리메리크리스마스가 선정되었다. 아마 이제 곧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했다.



음감회를 시작한 이유는 의인테를 하면서 학생들에 대해 알고 싶었고, 식사를 하며 편한 분위기에서 노래 이야기를 하며 서로에 대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 의인테를 하면서 새롭게 좋았던 점은, 살면서 새로운 노래를 듣게 되는 경우가 적은데 새로운 노래에 대해 알 수 있어 좋다고 하셨다.

음감회를 참관한 소감은 다음과 같다. 같이 식사를 하는 편한 분위기 속에서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인테 수업에 모두가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가기 전에는 노래에 대해 이야기만 할 줄 알았는데, 노래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한 것이 좋았다.

[의료 전문 기자 되기]

작성자 : 박건우

참관 날짜 : 11/16 (월)

지도 교수 : 고석봉 교수님(산부인과)

수업 주제 : 직접 기사를 작성해보고, 작성한 기사를 토론하며 상호 평가

멤버 : 김정연, 김기훈, 서수경, 유한나

장소 : 암센터 1층 부인과 회의실



최근 현대인들의 의료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TV 채널을 돌리다보면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제를 홍보하는 홈쇼핑광고를 흔히 접할 수 있으며, 최근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SNS의 광고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먹기만 해도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코로나까지 치료할 수 있다는 엄청난 효과의 알약과 원액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은 과연 정말로 팩트인 것일까?

산부인과의 고석봉 교수님께서 담당하시는 『의료 전문기자 되기』 수업의 취지가 바로 이와 관련되어있다. 의대생으로서 미디어가 얼마나 올바른 기사를 제공해주는지, 혹은 잘못된 정보로 도리어 건강을 해치게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수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활동을 하게 된다. 실제로 언론사를 방문하여 의료기자의 활동 및 취재과정을 체험해보는 것과, 직접 기사를 작성해보고 조원들끼리 서로 평가해주는 활동, 이렇게 두 가지이다. 가능하면 언론사를 방문할 때 따라가서 체험해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참관 제의를 했을 땐 이미 언론사를 다녀온 뒤였다. 그래도 각 수업의 활동내용을 소개해야하는 보도본부의 취지에 맞게 조원 중 한 명에게 체험 후기를 들어보았다.



언론사 체험은 9월 24일,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매일신문 본사에서 진행하였다. 활동엔 의료, 보건 분야 담당의 이석수 기자님이 동행하였다. 의료 기사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에는 본사 지하에 위치한 신문박물관을 견학했다. 박물관 내부에는 옛날 신문과 카메라, 과거에 신문을 찍어낼 때 사용된 활판까지 신문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다. 옛날 신문 중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신문도 전시되어 있었으며, 심지어는 북한 신문도 있었다. 박물관 체험 이후엔 기자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가진 후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전해들은 내용 중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것은 요즘 신문사에는 SNS 전담 부서가 따로 있어서 각 신문사의 사이트를 관리하고 영상도 만들어서 올린다는 점이였다. 신문사에서서는 말 그대로 신문만을 출판하는 곳이라 생각했던 내겐 꽤나 신선한

정보였다. 이처럼 의료 전문기자의 활동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사의 전반적인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리라 생각한다.



이후 필자가 참관한 모임은 조원들 각자가 써온 기사를 돌려가며 읽고 서로 평가를 하는 자리였다. 장소는 암센터 건물 1층 부인과 회의실. 교수님께서 사들고 오신 푸레쥬르 빵과 주스를 먹고 마시며 가볍게 분위기를 풀었다.

본격적으로 각자가 써온 글을 읽어보기 전, 교수님께서 매일신문에 기재하신 글인 ‘사추기(思秋期)’를 우선 낭독해보았다. 주요 소재는 ‘폐경이행기’에 대한 글이었다. 여성이 폐경이 되기 이전 4-5년의 기간 동안 나타나는 안면 홍조,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가을이라는 계절과 연관 지어 작성한 글인데, 관심이 생긴다면 네이버에 키워드만 검색해도 금방 나오니 직접 찾아보도록 하자.

이후 각 멤버들이 서로 자신이 써온 글을 번갈아가며 낭독하였다. 자유주제다보니 각각의 글은 의학과 관련이 된 것도 있었지만 의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도 있었다. 아래는 조원들이 쓴 글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김기훈 - [감나무]. 할머니 댁에 자란 100년이 넘는 감나무에서 감을 따는 연례행사를 생생한 묘사로 기술한 일종의 수필. 감을 따는 과정은 물론 흥시와 단감의 차이 및 보관법 등을 세심하게 서술하였다.

서수경 - [코로나 블루]. 코로나 사태 이후 생겨난 신조어인 ‘확찐자(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다보니 활동량이 급감해 살이 확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 ‘돌밥돌밥(온라인 수

업 시행으로 자녀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돌아서면 밥을 지어야 하는 주부'를 뜻하는 신조어) 등을 소개하면서, 그 중 가장 유명한 신조어인 '코로나 블루'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함.

유한나 - [의과대학 학생들의 취미]. 의대생들의 취미생활을 소개하는 글. 주로 유튜브로 다른 직업군의 v-log를 보며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삶을 간접체험하거나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과 놀러가고, 넷플릭스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등 다양한 취미활동이 있음. 빠듯한 시험일정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보임.

금정연 - [환절기 호흡기 질환 관리]. 가을철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에 대해 소개하고 증상 및 예방법을 기술.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인플루엔자, 감기, 코로나19) 등을 다룸. 특히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와 감기의 특징적인 차이점도 덧붙임.

낭독이 끝나면 교수님과 학생들이 서로의 글에 대한 감상과 평가를 남겨주었다. 피드백이 끝난 이후엔 학교 근처 횡집인 '감포물회'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식사 도중에도 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기한 상식이나 정보를 알려주셨고 미국여행이나 스키장 등에 얽힌 재미있는 썰도 들려주셨다. 그러면서 때때론 현재 본과 4학년 선배들의 국시 문제에 대한, 조금은 진중한 이야기도 하셨다. 이후 후식 겸으로 투썸에서 입가심을 한 후 만족스럽게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참관 후 감상]

활동은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각자가 써온 글을 듣고 평가해 보는 과정도 나름 재밌었으며, 교수님의 독특하고 재치 있는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쏠쏠했다. 신문사 방문 체험도 신선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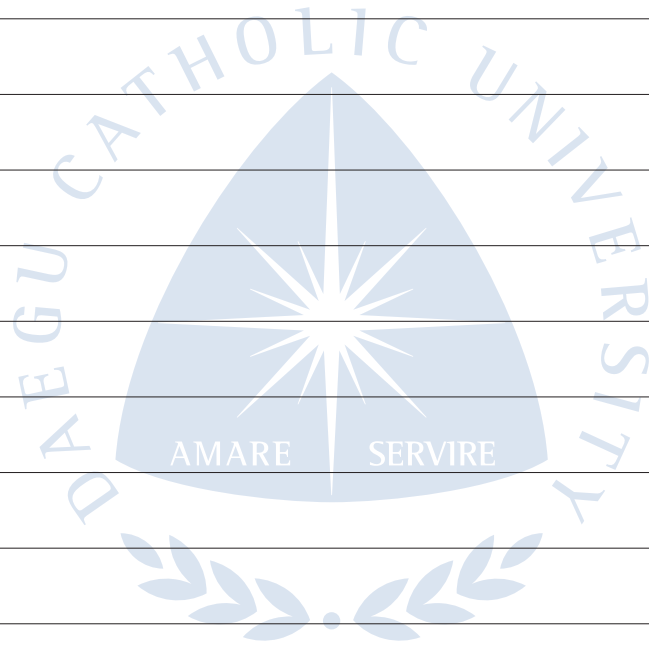
최근 인터넷 상에서 범람하는 기사들은 얼핏 보아도 근거가 빈약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명 '쓰레기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을 낚잡아 부르는, 일명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신조어가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그만큼 보느니만도 못한 기사가 우리 주위에 넘쳐난다는 뜻이다.

그런 저질 기사들 사이에서도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며 입증된 정보로 글을 써나가는 기자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

퍼런스와 전문성이 중요한 의료 전문기자 분들이 더욱더 양질의 기사를 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MEMO



[조금 더 알아보자! 의료정책]

작성자 : 신은민

일 시 : 2020/11/19 오후 5시 20분

담당교수 : 이건호 교수님

조 원 : 백승원, 유준호, 이명섭

의료인문테마스쿨 ‘조금 더 알아보자! 의료정책’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에 대하여 자료조사를 토대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조사한 의료정책은 의료계에서는 흔히 ‘4대 악법’이라고 부르는, 2020년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파업의 계기가 되기도 한 정책들이다.

1. 의대정원 확대
2. 공공의대 설립
3. 첩약의 급여화
4. 비대면 진료

이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의대생 또는 의사 등 의료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에는 찬반의 입장보다는 우리 ‘의대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보았다.



1. 의대정원 확대

준호 : 우리가 일상에서 의사가 부족해서 혹은 병원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인 1인당 평균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재원일수도 길다. 물적자원도 풍부한데다, 의료수가도 전세계적으로

싼 편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국토 면적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 땅이 작아 자동차로 수시간내로 어디든 갈 수가 있다. 극단적으로 어떤 지역에 병원이 없다고 해서 대도시로 차 타고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또한 대도시와 시골의 격차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시골보단 도시의 의료시스템, 인프라 등이 뛰어난 건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정원을 늘려서 해결되지 않는다. 의료 전달 체계를 확실히 하고,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2. 공공의대 설립

준호 : 공공의대와 관련된 법은 발안이 된 시점부터 말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공공의료야 많이 부실해서 공공의대를 세울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계의 공공성을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 공공의료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게다가 공급과 가격도 법적으로 통제되고 있어 이미 공공의 성격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다. 당장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민간 의사들이다. 이렇게 이미 공공의료의 역할은 공공의료계와 민간의료계에서 잘 분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면을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는 부실하지만, 공공의료는 부실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공공의대는 학생선발과, 수련기간, 복무 기간 등 법적문제에 대해 논란이 정말 많았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 할 만한 표현들이 있었고, 의문들에 대해 끝까지 확실한 답을 내주지 않았다. 수련기간과 복무기간에 관해서는 표면적인 논란을 해결하긴 했지만, 법이 악용될 여지를 지우진 못했다. 이 발표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는 커녕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다.

어떤 법을 만들 때 의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지, 또한 악용가능성과 문제소지가 있는지를 정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선 공공의대를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래 존재하는 인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3. 협약의 급여화

승원 : 건강보험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에 대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은 아직 조제과정의 표준화와 치료효과 근거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봤을 때, 협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협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점은 건강보험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었으나 아직 보험적용이 안되고 있는 항암제, 만성 질환치료제가 많다는 점에서 첩약의 우선적 보험화가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첩약 급여화를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첩약에 대한 명확한 표준화와 과학적 근거를 확립한 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이상적일 것 같다.

4. 비대면 진료

명섭 : 비대면 진료의 찬/반을 논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 확충, 비대면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적 이익, 의료진과 환자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의 보호일까? 이번 토론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주된 목적은 의료 접근성 개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다르게 좁은 국토에 높은 의료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 병원이 없어 진료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만약 비대면 진료가 실행된다면 고려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았다. 우선, 비대면 환경에서 직접 진찰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들이 기존의 진료 방식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타당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대면 진료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주제가 정책이다 보니 법안이 관련되어 있어서 마냥 쉽고 재미있지만은 않다. 하지만 의대생으로서 당장 우리에게 대면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관심 갖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각각의 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토론이 끝나고 교수님께서 의인테 조 회식자리에도 불러 주셔서 참석할 수 있었다. 학교 앞의 '크누'에서 비싼 소고기를 먹으며 학교생활이나 현재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수님과 식사자리라 좀 불편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교수님께서 매우 유쾌한 분이셔서 불편하지 않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이 건호 교수님과 함께 의인테를 했던 선배님들도 아직까지 교수님과 연락하고, 식사자리도 종종 가진다고 하셨다. 식사를 마친 후 교수님께서 다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셨다. 회식자리에 있던 대부분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고기를 굽다 보니 얼굴이 빨갛게 익어서 그게 그대로 사진에 나왔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사진 제목을 붙여 주셨다.



< 제목 :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

[머신러닝 뭐꼬? 내강 관계 있나!!]

18118306 배주형

담당교수님 : 박기성 교수님

조 원 : 배준우, 최형렬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전자 기계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의료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기계가 발전하는 건 물론 인공지능 의료 로봇 왓슨이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도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의대생들은 의학적 지식을 쌓는 것 뿐만 아니라 기술, 특히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부턴 우리학교 예과 1학년들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18학번 학생들은 이러한 프로그래밍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 수업이 그러한 지식을 찾는 학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필자가 이 수업에 참여했을 때는 이미 그 조원들은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수업이 끝난 뒤 조원들을 따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Q1. 이 수업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형렬 A1 : 머신 러닝이라는 이름이 심금을 울렸고 무언가 다른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거 같아서 신청했다.

배준우 A1 : 처음에 머신러닝을 잘못 읽어서 런닝머신인 줄 알고 워낙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터라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였지만 다시 목록을 제대로 읽어보니 머신러닝이었다. 그래서 잠깐 주제를 바꿔 수정해야하나 하고 고민을 하였지만 24년 인생동안 기계나 컴퓨터라고는 게임 하는거밖에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고 한번 배워보겠다는 노력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기회를 통해 기계와 한번 친해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Q2.. 이 수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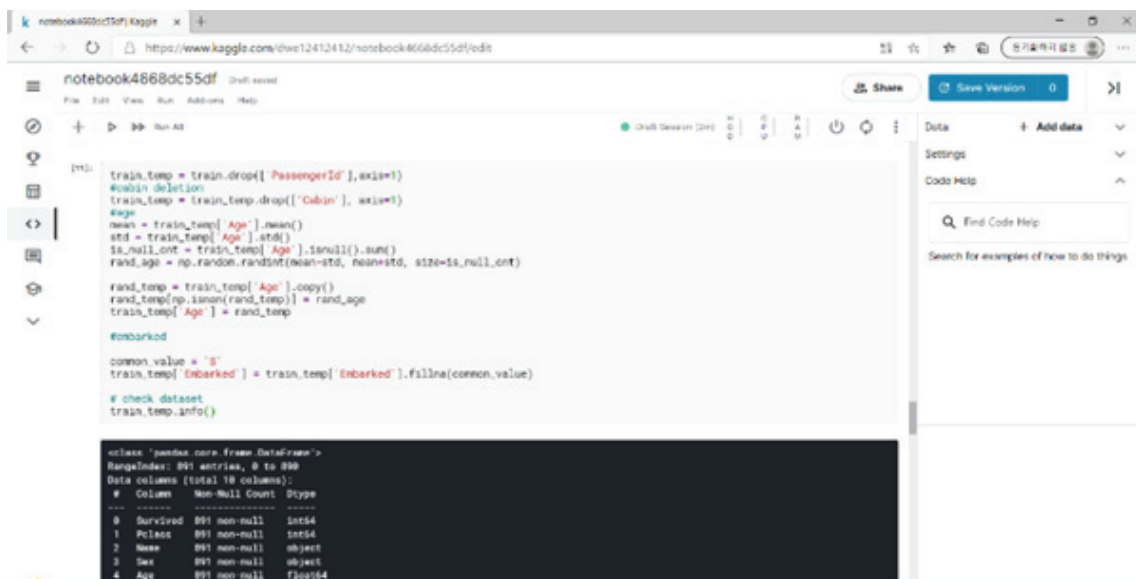
A2 : 현재 우리가 학과에서 배우는 전공인 의학과는 다른 분야이지만 우리 병원에서 쓰는 왓슨처럼 언젠가는 접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의 빅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가면서 의학 이

외의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수업이다.

Q3. 수업시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A3 : 머신러닝을 배우기 위한 장치로 주피터 노트북 (jupyter notebook) 을 사용한다. 주로 파이썬을 이용하여 특정한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 넣은 뒤에 결과를 도출해내는 능력을 컴퓨터가 갖게 한 뒤에 이 능력이 얼마나 정확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한다.

이에 대한 예시로 현재 ‘타이타닉 호의 생존확률’ 이라는 머신 러닝에서의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타이타닉 호의 생존확률에 대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이타닉 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 이름, 성별 등의 자료들을 조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인 생존확률에 있어서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공부했다.



```
train_temp = train.drop(['PassengerId'], axis=1)
# Cabin deletion
train_temp = train_temp.drop(['Cabin'], axis=1)
# Age
mean = train_temp['Age'].mean()
std = train_temp['Age'].std()
is_null_cnt = train_temp['Age'].isnull().sum()
rand_age = np.random.randint(mean-std, mean+std, size=is_null_cnt)

rand_temp = train_temp['Age'].copy()
rand_temp[np.isnan(rand_temp)] = rand_age
train_temp['Age'] = rand_te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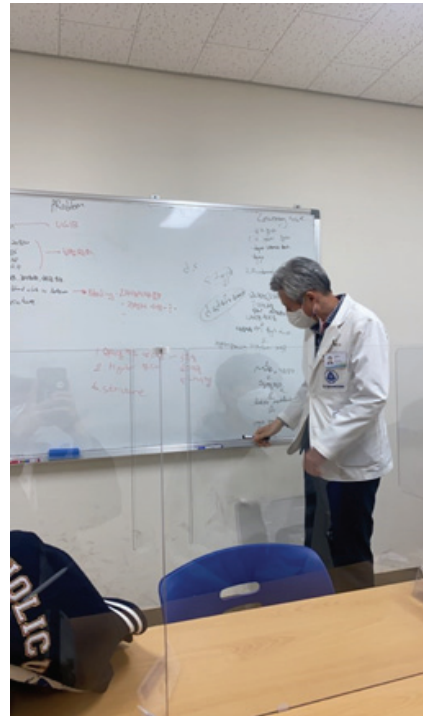
# embarked
common_value = 'S'
train_temp['Embarked'] = train_temp['Embarked'].fillna(common_value)

# check dataset
train_temp.info()
```

```
<class 'pandas.core.frame.DataFrame'>
Int64Index: 891 entries, 0 to 890
Data columns (total 18 columns):
 # Column   Non-Null Count  Dtype
---  -
 0 Survived  891 non-null    int64
 1 Pclass    891 non-null    int64
 2 Name      891 non-null    object
 3 Sex       891 non-null    object
 4 Age       891 non-null    float64
```

Q4. 기자가 간 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A4 : 타이타닉 호에 타 있었던 사람들의 자료에는 ‘결측치’라는, 자료에서 누락된 지표들이 있는데, 결측치의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으니 다른 값(평균, 중간값 등)으로 대체해서 결측치를 채워 넣는 과정을 시도하였다.



Q5.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통해 배운점 그리고 느낀점은 무엇인가요?

최형렬 A5 : AI와 딥러닝, 머신 러닝 등은 매우 생소한 용어이며 인터넷이나 뉴스 기사로만 접하던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배우면서 우리가 의학만 배울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보화시대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배웠다. 또 이러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인공지능 등을 통해 특정한 질병의 이환율, 사망률 등의 예측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보여 이 수업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겠다 느꼈다.

배준우 A5 :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절실하게 느꼈다. 컴퓨터라는 기계는 내가 보았을 때는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는 네모상자밖에 되지 않지만 이 기계를 가지고서 여러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여러 일에는 내가 후에 의사가 되어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른다고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알아가면서 게임이외에도 실생활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기기로서 사용하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느꼈다.

필자가 느꼈듯이 학생들은 미래에 이러한 분야를 처음 접하게 된다면 분명 당황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두 학생의 모습을 보고 의대생 모두 한번쯤은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인문 2D하기]

참관날짜 : 12월 8일 화요일

지도교수 : 이용직

학 생 : 김미례, 나승민

이용직 교수님께서 지도하고 계신 ‘의료인문 2D하기’ 조를 견학하였다. 이 조는 조원들이 여러 영화를 시청한 후 각각 감상평을 작성하는 활동을 하는데 그동안 시청한 영화들은 패치 아담스(Patch Adams), 컨테이션(Contagion), 언노운 걸(Unknown Girl) 등 의사나 환자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시해주는 영화들이었다. 사실 견학한 시점에는 조 활동이 모두 끝나고 테마스쿨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어 영화를 보고 글을 쓰는 등의 활동은 참여해보지 못하였다. 대신 인터뷰 형식으로 질문을 세 가지 정도 준비하여 교수님, 조원들과의 식사자리에 끼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준비해간 질문을 교수님께 미리 보내드리지 못했고, 질문의 내용 또한 발표회에서 준비하는 내용과 상당히 겹쳐 답변을 듣지는 못하였다. 대신 식사자리에서는 교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오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시청해온 영화들에 대한 소개와 생각할 만한 점, 의사의 덕목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대략적인 이미지를 잡을 수 있었다. 식사자리는 재미있고 유익했지만 평소 활동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충분히 알게 되지는 못하여서 추후 답변받을 새로운 질문을 열심히 고민하게 되었다. 만약 영화들의 공통된 주제나 선정되는 방식, 학생들이 꼽은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와 생각할 거리, 이 테마스쿨의 장점 등 핵심적이고 흥미로운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나승민, 김미례 학생이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경청해야 한다.

며칠 후 발표 내용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질문들을 작성하여 보냈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받았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Q1. 이 조의 활동이 다른 조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흥미로운 것 같나요?

김미례 A1 : 평소에 영화를 볼 때 그냥 재밌는 영화, 순위 높은 영화 그런 것들 위주로 봤었는데 의인테 활동 덕분에 잘 알지 못했던,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또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단순히 영화만으로도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그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Q2. 조원이 두 명밖에 안 되는데 활동하는데 있어 장점이거나 단점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김미례 A2 : 원래는 세 명이었는데 공교롭게 어찌다 보니 두 명이 되었습니다. 하하 두 명이어서 약간 썰렁한 느낌이 들 때도 있긴 했지만 두 명밖에 없다 보니 동기랑 좀 더 친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꼭 조원이 여러 명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3. 평소 좋아하던 영화들의 장르와 테마스쿨을 하며 시청한 영화들의 장르가 비슷한지, 다르다면 어떤 점이 새로웠는지 궁금합니다.

나승민 A3 : 평소 저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즐겨 보았습니다. 테마스쿨의 영화들은 모두 의료 혹은 의사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장르는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영화였습니다. 반면 '컨테이션'이라는 영화는 신종 바이러스의 발생에 따른 스릴러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화의 폭이 제 취향과 부합되었고 테마스쿨 활동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점은 의료에 관한 영화를 흔히 보지 못했지만 이번 테마스쿨을 통해 의료나 의사 관련 영화들을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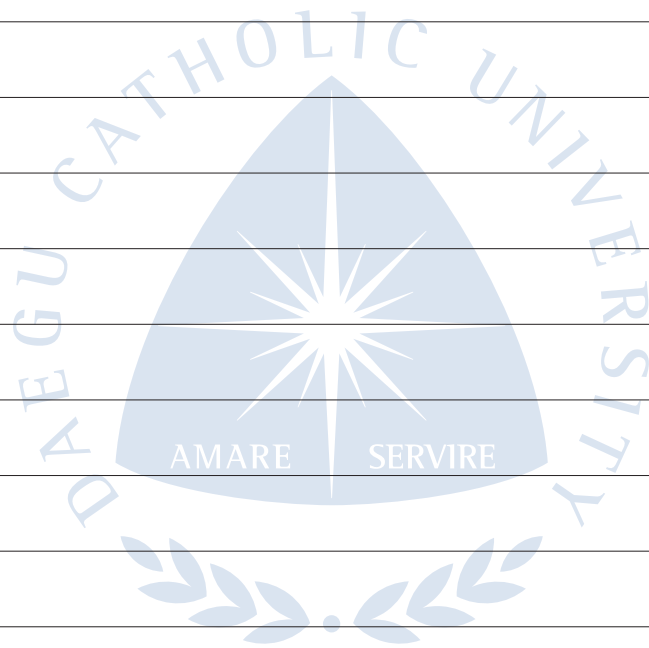
Q4. 영화를 본 후 후기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이 재밌거나 힘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나승민 A4 : 영화를 본 후, 단순히 흥미 위주로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상문을 작성하며 그 영화에 대해 느낀 점과 평소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의료에 대한 다방면의 주제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들인 만큼 의사의 책임과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힘든 점이라면 아무래도 본과 1학년 2학기가 힘든 시기라서 시험 일정과 겹칠 때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저희의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덕분에 크게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답변을 받고 나니 새삼 학생들이 단순히 영화를 보고 감상평을 작성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각자 활동에 대해 나름대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거나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은 것 같아 흥미로웠다. 또한 활동이 버겁지 않아 학생들이 강의나 시험 일정에 방

해받지 않고 무리 없이 하는 것 같았다. 사실 참관 전 이 테마스쿨의 수업계획서를 읽었을 때 영화시청으로 한국의 의사상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식사자리와 인터뷰를 통해 그러한 편견을 깰 수 있었다.

MEMO



[How we die?]

18131149 김동진

참관 날짜: 12/15 (화)

지도 교수님: 설기호 교수님, 이정원 교수님

참여 학생: 김민규, 박세혁, 서규완

장소: 루가관 5층 세미나실

12월 15일에 루가관 5층 세미나실에서 'How we die?'의 수업을 참관했다. 교수님,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How we die?'의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 영상을 보면서 수업이 시작됐다.

발표 영상은 말기암 환자들의 남은 삶과 죽음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이를 본 학생들의 소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 번째 환자는 39세의 대장암 4기 환자인 김정화 씨였다. 7세의 아들을 두고 있어, 죽기 전까지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하며 평안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어하던 김정화 씨는 결국 대장암으로 판정 받은 지 2년 후 세상을 떠났다. 학생들은 암환자의 사연을 들여다 본 것이 처음이었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 의사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내가 감히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를 이해해야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환자는 남편이 대장암 4기를 판정받고 항암 치료를 받아 좋아졌다는 말을 듣게 된 날, 통증이 시작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림프종 4기 판정을 받은 33세 오은주 씨였다. 두 부부는 남은 날들을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데 낭비하지 않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싶다며 긍정적으로 말했다. 학생들은 암을 판정받고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점과 감사하며 남은 삶을 축복하며 남은 삶을 살겠다는 말은 현실에서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저 상황에 처한다면 내가 과연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했고, 환자와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던 자신을 반성하기도 했다.

영상을 보고, 교수님께서 추천하셔서 학생들이 각자 읽어온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책의 이름은 When breath becomes air (호흡이 바람이 될 때)로, 36살의 나이로 폐암에 걸려 어린 딸과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난 신경외과 의사, 칼라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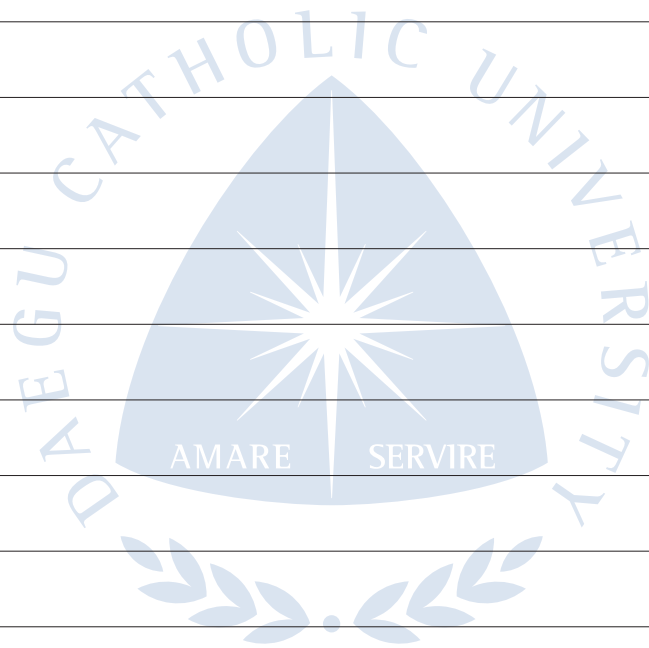
의 회고록이다. 암에 걸리고 쓴 글이므로 평소 그가 느낀 인생과 죽음과 도덕의 문제를 의학적인 측면에서 기술해 나가고 있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는 그가 수련의 생활을 하던 중, 2013년에 폐암이 발병했으나 계속해서 수련을 하다 결국 마지막 7년차 생활을 하던 2015년에 생애를 마감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책을 읽고 난 후의 소감에 대해 말했다. 폐암을 앓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평소 하던 수련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에서 감명을 받은 학생도 있었고, 환자들을 위해 죽음에 맞서 싸우던 의사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모순적인 상황에서 나라면 어땠을까에 대해 생각해본 학생도 있었다. 교수님께서 이 책을 추천하신 이유는 칼라니티가 평소에 교수님께서 하시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것에 감명을 받으셨기 때문이었다. 칼라니티는 평소에 하던 일을 집어치우고 절망적인 태도를 갖는 대신에, 병에 걸리더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그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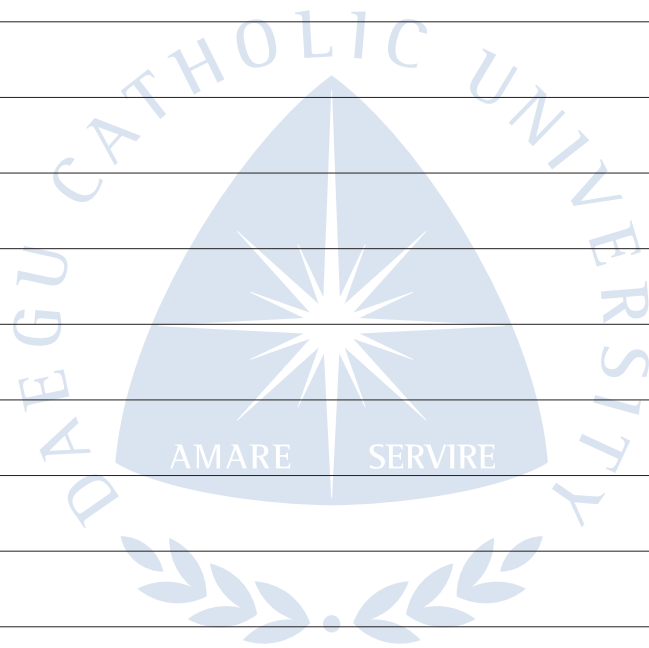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How we die?’라는 수업을 개설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다. 글이나 영상으로 죽음에 대해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생각해보는 것을 통해 죽음을 보면서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었다고 하셨다. 의사가 되기 전, 죽음에 대해 고민해 보면서 좋은 의사를 만들고 싶다고도 하셨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남은 의과대학 생활과 앞으로 의사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오늘 하루 잘 살아가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이 수업을 통해서 의과대학 생활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의 한 마디가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 해주셨다.

‘How we die?’ 수업을 참관하고 느낀 점은, 의과대학 생활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 많이 고민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수업시간에는 막연하게 이 환자는 증상이 이러하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지만 환자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환자들을 그저 치료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들에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은 수업이었다.

MEMO



MEMO



MEMO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